

다산포럼

이 땅의 문화는 어디로 갔는가?



조 광

한국실학학회 회장

대선 때, 여러 후보자들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우리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았지만,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그 후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문화에 대한 친절적 안건들은 아예 언론 보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수위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심의 질과 양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국가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책임지어야 할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 문화는 잊었던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주기까지 했다.

의식 중에 사치나 소비 정도로 인식하려는 천박성의 표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족문화의 재난이며 국가적 위기일 수밖에 없다.

20세기 전반기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을 때, 독립을 지향하던 선조들은 치열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단체 신체호, 맥박 박은식 그리고 위당 정인보, 민세 애재홍 선생 등과 같은 이들에게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해 준 힘은 바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일제 하 독립운동을 하면서 신고의 날을 보내고 있던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를 '문화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 문화는 잊었던 국권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주기까지 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이나 국방력 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적 맘풀꾸리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높게 평가해 주는 까닭은 그들의 문화전통이 친란하고, 그 문화의 혜택을 함께 공유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독일이 존경받는 이유도 그들의 국방력이 강해서 아니라 그 문화의 힘 때문이다.

문화는 이렇듯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에 나

라 일을 맡아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세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

국방을 위해 세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임을 미쳐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가치의 핵심인 건강하고 올바른 우리 문화를 국방과 대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복지정책 가운데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를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필요한 정신적 양식인 문화에 대해서는 경제와 전혀 무관한 듯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국가는 민족사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사학이 아닌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정치뿐이 역사학의 기능을 잠식해도 되겠는가. 국가의 언어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가. 민족의 고전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데에 드는 예산은 당장 두 배로 올린다 하여도 부족하다.

도서관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문화의 핵심인 출판문화를 살리려는 정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뉴질랜드와 같은 신생 국가의 경우에도 인구 5000명의 도시에

어엿한 박물관이 있다. 그 나라는 결코 돈이 남아서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나타낸다.

정보통신사업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전통적 문화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시아의 청취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들였던 '대장금'이라 연속극이 있었다. 이 국의 대부분은 한글로 출판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문 몇 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 전체 번역비의 몇 배를 벌어들었다.

복지나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리고 교육도, 문화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언제나 마지막 장신구로 논의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문화의 창달을 단순히 선언적 문구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문화에는 소모적 측면이 없는 않다. 그러나 문화는 결코 소모품에 그치지는 않고, 다른 창조적 생활이나 직업을 이끌어내는 창조의 원천이다. 국가는 문화에 관한 언급이 선언에 그치지 않음을 다시 분명히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고

광주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고 광 삼

뉴스1 광주전남 지사장

지역 특성상 오로지 '실력을 길러야 산다'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뜨거운 열정과 간접함이 광주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광주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년도 전국 1위를 기록했던 광주지역 고교 2학년의 성적은 5위로 곤두박질쳤다. 2011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국어 2위, 영어 4위, 수학 5위로 추락했다.

이 같은 광주 교육의 현주소에 일선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큰 충격속으로 빠져들었다. '학업성적 평가는 곧 수능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올해 수능을 치러야 하는 고 2학년 및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최근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중학생을 등급별로 나눠 공·사립학교에 배

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무려 687명의 강제배정 인원이 발생했다. 일부 사립중은 같은 법인 소속 고교에 단 1명의 학생이 배정되지 못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데만 2~3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배치되는 환경한 일이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중순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감독 실수로 도중에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전교조 출신인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의 과도한 규제가 학교의 사기 및 학부분위기를 해쳐 결국 광주 실력이 떨어졌다며 교육정책의 궤도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 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학계단을 마치 비리나 범죄집단이라도 되는 듯 물어세우는 등 일선 학교와의 '불통(不通)'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 교육감의 더 큰 문제는 곧으로는 '진보'와 '정립'을 표방해놓고도 성적을 조작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감싸는가 하면,

자신은 60평형 아파트 관사에 살면서 취임

전 살았던 자택은 임대해 짐작한 수익을 챙기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학생인권'을 강조해놓고도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3번이나 번복하면서 일선 학교현장을 오락가락 헛되이 빠뜨리는 모습을 지켜본 학교와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 까지 토로했을 정도다.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광주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내세울 것은 결국 '실력'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교사와 부모들이 어린 제자와 자녀들에게 훈신의 힘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 교육감은 이제부터라도 '광주 실력'을 만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진심으로 충언드린다. 유후날 광주 교육을 망쳐놓았다는 원성을 들을 일이 두렵지 아니한가.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고

조기독서는 올바른 성장의 길잡이



강 소 원

전 송정도서관장

아동들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공부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된다. 이를 이겨내지 못한 아동은 방황하게 되고, 심할 경우 성적 부진으로 소외감과 염증의식에 사로잡혀 가출을 저지르는 등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10대 때는 남·여 할 것 없이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다. 자신의 자녀가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 뿐인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맹모삼천지교'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성인이다. 신체와 지능발달이 가장 왕성한 아동기의 올바른 성장을 돋울수 있는 자녀의 성공 여부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나는 이에 여가 생활을 전한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돋울 것이다.

인간은 일정한 사회규범 속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독서의 필요성을 권유해야 한다. 스스로 독서에 대한 인식과 필요 의식을 갖고

독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가정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오래 전에는 썩게 마련이고 휴식이 너무 길면 녹이 슬게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그 앞날에 어두움과 암울함을 끌어온다.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계책이 있었겠는가!

인내가 끈기를 넣고 끈기가 소망을 낳는다는 말처럼 책을 자주 접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독서의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독서를 권유해 준 부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리나게 된다. 그럼 항상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독서를 권유하는 것이 자신의 앞날을 일깨워주는 갚진 조언임을 알게 되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효행심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정과 더불어 학교와 도서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협동적인 연계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기초교育 단계의 아동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익히고 도서관 이용 습관을 들이게 해 조기독서 지도를 강화해

야 하는 것이다. 그럼 사고력과 판단력, 창의력이 길러져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며 시간낭비를 자제하게 돼 결과적으로 음주, 흡연, 폭행 등 비행 청소년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도 출제경향이 바뀌어 종전의 단순 암기식 평가에서 개념의 이해와 문제 해결과정을 중시하는 능력 평가 방법을 많은 대학이 채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과와 관련한 폭넓은 독서교육이 질질하게 요구된다. 이제는 기초교育 단계인 초등학교 시기 초기 독서습관을 길러 성장 과정에서 폭넓은 독서를 하지 않으면 대입이란 어려운 관문을 끓기 어려운 실정이다.

독서에서 세 가지 독서법이 있다. 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이 읽고 (多讀), 많이 생각하고 (多思), 많이 지어야 (多作) 하는 삼다(三多)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또 눈길이 책을 끓는다는 정독의 방법과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그 책을 맨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三絕)는 명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도시의 도로에는 통행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갓길이나 인도를 모두 설치했으면서, 농촌주의 지방 국도에는 갓길이나 인도가 거의 없다. 이는 난폭운전을 하는 차들에게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몸챙기라는 애기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농민들은 밖은 대낮보다 늦은 저녁시간대나 이른 새벽에 논밭으로 많이 나가는데 차도 옆에 인도나 갓길이 없으니 자연스레 차도로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즐거나 난폭운전하는 차에게 춤지

에 치어서 죽거나 중상을 입는 형편이다. 이제는 도로 설계시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농촌 주변 도로가의 갓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차도로 다니다가 봄봉을 당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민들도 반드시 야간에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 역시 갓길 없는 국도상을 운행할 때는 경운기, 자전거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혜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교통사고 잦은 농촌 도로 개설때 갓길 꼭 만들길

친정이 시골인데 농민들이 시골 도로변에 서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시골에도 이제는 길이 잘 놓려 있다 보니 왕복 4차선인 경우에는 거의 고속도로나 진 배없이 차가 다닌다. 또한 2차선 국도라 해도 시골길이다 보니 차량이 많지 않아 차들

社 說

정치권, 지역의 설 민심 제대로 새겨라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확인한 설 민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주류를 이뤘다. 또 대선 패배 이후 여전히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민주당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고,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인사대andlevel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의 이행 여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일자리는 없고 하루가 무섭게 뛰어오르는 물가와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서민들은 설 명절을 맞은 빨름보다 고통이 더 앞섰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건설업이 초도화된데 이어, 조선업도 내리막 길이다 보니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는 부도에 내몰리고 있다.

이 지역 20~30대 취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0~60%로 타 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극빈층도 부지기수다.

채소·과일류, 공산품 등 천정부지의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불어만 가는 가계 빚은 서민들에겐 두려움 그 자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역민들은 특히 대선 패배에도 진정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없이 계과 같등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놀랄 뿐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빠를 끝에 새신ONA와 '공천 혁신', '제과 정치 청산' 등을 통해 국민의 정당,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역민에게 약속한 인사대andlevel과 각종 공약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기대했다. 정치인들이 이제 설 민심을 제대로 살폈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을 세우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농어민들의 아픔도 치유에 나서야 한다. 민심을 외면하고, 성공한 정치나 정부는 없다.

시교육청 교육장 공모 공정성 담보해야

광주시교육청이 공모한 서부교육관 리청 교육장에 본청 장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일면서 교육장 공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장관이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단이라는 조유의 사태 주무과장으로 징계 대상에 오르내렸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부교육청 교육장 공모를 마무리 짓고, 이달 말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박 교육인사과장과 심 도 광주교과학교 교장 등 2명이 지원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선임되었던 박 교육감은 최근에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단사태에 고교배정방식 출신 변경 등으로 부실한 행정관리능력이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대로 된 행정으로 그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 '내편 인사'는 안 된다.

無 等 鼓

문제는 박 교장이 장희국 교육감 체제의 교원인사 책임자로, 교육장 공모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또 지난달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단이라는 심각한 사태의 주무과장으로 징계 대상에 오르내렸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부교육관 리청